

패배를 모르는 도전

- 「노인과 바다」를 읽고-

김길수*

1. 들어가며

아주 오래전, 아마도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일요일 밤 TV에 영화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검은 빨테안경을 쓴 한 영화평론가-지금은 고인(故人)이 된걸로 알고 있다-가 예고편을 통해 “이 영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통해 특별히 괜찮은 영화에 대한 애정(愛情)을 표시했었고, 그런 영화들은 정말 ‘놓치지 않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었다. 바로 그런 영화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였다.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약간은 고집스런 한 노(老)어부의 84일간의 힘든 항해, 그리고 항해중에 일어나는 행운(幸運)과 고난(苦難)을 정말 잘 그려낸 수작(秀作)이었다.

그날 밤늦은 시간. 영화자막이 올라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 방으로 돌아와 그때까지 읽지 않았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책장에서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다. 방금 본 영화의 장면들을 연상하며, 그리 길지 않았던 소설을 금새 읽어냈다. 책으로 접한 ‘노인과 바다’는 또 다른 감동을 내게 안겨 줬었다. 그때 난 불을 끄고 누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노인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노인의 항해 자

* 국제대학 법학부

체가 우리 인간들의 인생향로구나! 노인이 힘겹게 잡아낸 티뷰론은 우리에게 다가온 행운이고, 그 티뷰론을 앗아간 상어떼들은 인간들에게 다가온 고난이고.’

그렇게 10년 넘게 잊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다 우연히 본 게시판에 붙은 벽보에 ‘해양 친화사상과 해양개척의지’를 담은 글에 대한 감상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 기회에 노인과 바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을 주저없이 하게 됐다.

‘고전은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고전’이라 했던가! 다시 대한 ‘노인과 바다’는 예전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과 생각들을 내게 선사해 주었다.

2. 감 상

지금부터 나는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한다-아니 어쩌면 그것은 헤밍웨이에 관한 얘기일런지도 모른다-이 글의 작가인 어네스트헤밍웨이, 그리고 이 글의 주동인물(主動人物)인 노인 산티아고. 이 글에서 노인은 헤밍웨이의-바다를 사랑했던-분신이고, 헤밍웨이의 사상을 행동으로 그려내고 있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까? 헤밍웨이와 노인은 참 많이도 닮아있다.

헤밍웨이는 생전에 쿠바의 아바나를 몹시도 사랑했다고 한다. 흔히 그의 이미지를 떠올릴 땐 멋진 흰수염과 함께 담배파이프를 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바닷가가 아바나 항구인 것이다. 그의 아바나에 대한 애정을 기려 지금도 매년 7월-헤밍웨이가 서거한-이 되면, 그와 닮은 사람을 뽑는 축제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노인이 살고있는 곳이 또한 아바나이다. 아마도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쓰면서 내내 자신이 사랑하는 아바나 항구의 전경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그를 아는 이들은 생전에 그가 몹시 고집스러운 성격이었다고 전한다. 그에 관한 일화로 ‘노인과 바다’에 관한 소재를 전해준 마뉴엘이란 어부가 소재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헤밍웨이가 이를 거절해

법정싸움까지 갔다고 한다. 유명작가(有名作家)인 헤밍웨이를 염려해 ‘요구를 들어 주라’는 주위의 충고를 거절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노인의 모습에도 투영되어 있다. 자신의 배보다 큰 고기에게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겨룰테다.”라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라.

닭은 점은 또 있다. 약간 억지같지만, 헤밍웨이가 이 글을 쓸 당시 나이가 52세로 그 자신 또한 이젠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되었다는 점도 작품속 노인의 모습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의 얘기를 해보자. 노인은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노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너무도 많다.

우선 노인 산티아고는 어부로서 ‘바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바다는 ‘엘마르’가 아닌 ‘라마르’인 것이다. 바다를 돈벌이의 장소로 여기고, 투쟁의 상대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바다를 남성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은 설령 바다가 달의 지배로 인해 간혹 어쩔 수 없이 사납게 굴고 재해를 가져올지라도 본질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고 격려를 해주는 애정의 대상인 여성-‘라마르’-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인은 바다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잡은 고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표현한다. 자신이 어부이기에 숙명적(宿命的)으로 고기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상어떼와의 싸움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다-노인은 얘기한다. “차라리 이 고기가 낚시에 안 걸렸더라면 좋았을 걸. 고기야, 미안하다. 너를 낚은 것이 만사(萬事)를 그르치고 마는구나, 이렇게 까지 멀리 나올 것이이 아니었다. 고기야.”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미안하게 되었다. 고기야.”라고.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삼아 사는 어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고기를 잡는 것이기에 잡기는 하지만, 정작 잡힌 고기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업(生業)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애정이 없고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으리라!

노인의 고기에 대한-바다에 대한- 애정은 상어떼와의 싸움 속에 고기가 형편없게 된 상황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상어란 놈들을 많이 죽였고, 또 그 밖에도 딴 놈들에게 치명상을 주었다.”라며 고기를 위로하는 장면에선 숙연함까지 불러 일으킨다.

노인에게서는 ‘인간사(人間事)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그는 현재 자신의 비관적 처지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가족 하나 없는 쓸쓸한 노년(老年). 80여일 넘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 어렵사리 잡은 고기마저도 상어떼라는 또 다른 방해물들에게 빼앗겼음에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긴 커녕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친구인 마놀린과 이웃들이 있는 항구의 불빛이 보이리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고난에 처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주위를 원망한다. 속된 말로 ‘잘 되면 자기가 잘 나서고, 못 되면 조상탓 한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주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기 자신을 더욱 옥죄는 명에임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탓이다. 그러한 우리에게 노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커다란 메시지인 것이다.

노인, 그리고 그의 친구인 소년 마놀린. 어쩌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노인과 소년. 이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슴 뭉클함을 전한다. 80여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못해 우울해 있는 노인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소년 마놀린. 소년이 다섯 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고기잡이 나가서도 소년을 그리워하는 노인 산티아고. 소년은 노인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어부로 여기고, 자식 하나 없이 외로운 노인은 그런 소년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 둘의 대가성(對價性)없는 이런 순수한 사귄은 대가성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사귀는 순수하지 못한 오늘날의 사람사귄과 비교해, 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래서 더 감동적인 것이다. 두 사람의 최대 관심거리인 고기 잡는 것과 야구얘기인데, 실상은 그것보다 같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두 사람의 관심거리인 것이다. 다시말해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둘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한 그렇지 못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 작품에선 야구선수 디마지오에 관한 언급(言及)이 자주 나온다. 물론, 노인의 입을 통해서이다. 노인은 디마지오가 어부의 아들이라는 사실

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어부의 아들’인 디마지오가 복사뼈를 다친 핸디캡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경기를 끝까지 해나간 사나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그렇기에 노인에게 디마지오는 단순한 야구선수가 아닌 대(大)디마지오이고, 존경과 경쟁의 대상인 것이다. 노인의 디마지오에 대한 이런 존경심과 경쟁심은 노인의 행동에 있어 스스로를 규율하는 본보기로 작용한다. 즉 디마지오와 닮고 싶은 마음이 노인의 행동에 있어 스스로의 도덕률(道德律)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노인은 디마지오가 복사뼈가 다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해냈듯이, 자신 또한 손의 통증을 무릅쓰고 상어 골통을 내려친 숨씨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디마지오에게 말이다-그리고 또한 이것은 곧이어 다가올 계속되는 시련에 있어서 자기에게 힘을 북돋우는 자기암시이기도 한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 그의 생활태도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생활자세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자기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노인처럼 말이다-

노인은 ‘고난에 대비하는 준비자세’와 ‘고난에 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때의 고난이 가시고, 또 다른 상어떼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미 작살도 없는 상태이지만, 나이프를 노 한쪽 끝에 매어두고, 팔로 키를 끌어왔고, 발로는 뜻의 밀구석 줄을 밟아 누른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희망을 되살려내며, 잠시나마 희망을 버렸던 자신을 책망한다. 이미 상어떼와의 싸움이 끝나고, 아바나 항구에 도착해서는 어떠한가? 앞으로 고기잡이를 같이 나가자는 소년의 제의(提議)를 받아들이며, “좋은 창을 하나 구해 가지고 언제나 배에 가지고 다녀야 겠어.”라며 다시는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고난에의 준비자세를 보여준다.

이처럼 고난에 대비하는 준비자세는 고난이 닦쳤을 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상어떼와의 싸움에서 칼을 떨어뜨린 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의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해보고야 말테다.”라고. 이런 노인의 모습을 두고, 단지 고집 센 노인의 아집이라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늙고 힘조차 없는 노인의 어디에서 이런 강한 의지가 나오는 것일까?

앞서 얘기했던 디마지오에 대한 존경심과 경쟁심도 어느 정도의 작용

은 했을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 마놀린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크게 의지를 북돋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노인 자신의 근본적인 어떤 것이 아닐까 싶다. 노인의 강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근본적인 어떤 것. 바로 그것이 이 글에서 노인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인 것이다. 그것은 '패배(敗北)를 모르는 불굴(不屈)의 도전정신'이었다고 생각된다. 글 속에서 노인은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노인의 독백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잡은 티뷰론은 비록 상어떼와의 싸움에서 머리와 꼬리를 제외하곤 흰골격만 남은 흉물이 되지만, 이는 노인에게 실패는 될 지언정, 결코 패배는 아닌 것이다. 실패는 다음번에 다시금 기회가 오면 만회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패배는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패배 뒤에 만회할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노인은 패배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최선을 다한 노인이었기에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패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의 끝장면은 노인이 다시금 만회할 기회를 꿈꾸고 있음을 전한다. 결코 패배하지 않은 노인은, 패배를 모르는 사자의 꿈을 꾸며 자고 있는 것이다.

3. 마치며

대략 이정도가 10여년 만에 다시 대한 '노인과 바다'에서 새로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다. 좋은 책은 대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읽는 이에게 전해 준다고 하던데, 다시금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노인과 바다'를 대하면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전해 줄지 사뭇 궁금하다.

사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도 노인과 소년에 한정(限定)되어 있을뿐더러, 양적인 면에서도 그리 길다 할 수 없다.-조금 과장한다면 동화(童話)같은 소설이랄 수 있을 만큼-그런데도 이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가진 독특한 진실성(眞實性)때문이었다. 여타의 소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가의 문학적 기교라든지, 아름다운

문체가 없는데도 다른 어떤 작품보다 많은 교훈과 진한 감동을 받은 이유가 바로 진실성 때문이라는 말이다. 결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담담하고 진솔한 자세로 줄거리를 전개하는 진실성. 그것이 글을 읽는 동안 나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고, 노인이 상어와의 싸움으로 고기를 잃었을 땐 나 역시 너무나 분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게 하였던 것이다. 흔히 헤밍웨이의 단편문학을 두고 미국 단편문학의 완성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이처럼 '진실성'을 갖춘 그의 문학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바다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젠 진부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은 결코 진부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진리(眞理)이기 때문이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이를 몸소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가!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바다에 도전하였고, 바다에서의 고난에 임해서는 '패배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어, 패배를 모르는 승리가 되었다. 누군가 바다를 정복하려 한다면, 노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바나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말이다.

